

제 25호
2013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보

교권수호 총장은 교수회 사무처장의 직위해제를 취소하라!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

교권수호 총장은 문화대학 학과장에 대한 형사고발을 취하하라!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

교수회 사무처장 해임을 의결한 징계위원들과 이를 주도한 총장은 물러가라!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



강릉원주대학교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제 25호
2013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보



강릉원주대학교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보

차례

- 4 교수회장 인사
- 6 교수회 존재의의 - 박 홍 식 교수
- 8 교수회의 학칙화가 대학의 운영을 어렵게 할까? - 전 교수회 사무처장
- 12 구조조정이랑 거대한 물결의 한가운데를 지나가며 - 패션디자인학과 교수일동
- 15 신임교수 소개
- 19 정년퇴임교수 소개
- 28 교수 동정
- 30 교수회 활동
- 38 교수회 구성 및 운영규정
- 42 제17대 평의원회 명단

교수님들께!

지난 해 말부터 시작된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일들로 인해 2013년은 강릉원주대학교 구성원 모두가 힘들었던 한 해라 생각합니다. 그 동안 학칙과 관련 규정 절차를 무시한 대학본부의 밀어붙이기식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교수회가 지적하고 반대하는 과정에서, 교수회에 힘을 실어 주신 많은 교수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대학은 40여개 국공립대학 중에서, 교수회가 학칙화되지 않은 극소수 대학중 하나입니다. 거점 국립대학교와 공주대학교를 제외하고는, 타국립대학에 비해 우리 강릉원주대학교는 그 규모가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수회의 위상이나 활동을 보면 국교련이나 지교련에서 교수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대학의 교수회가 처한 상황은 열악합니다.

전남대와 경상대를 비롯한 주요 거점대학교와 공주대를 비롯한 일부 지역중심대학교에도 단과학장임명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규정을 통해서 교수들의 의사가 학장임명에 제도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대학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단과대학 교수들의 의사가 무시되면서, 단과대학별로 시기별로 그 임명방법과 절차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대학이 대다수의 거점대학교나 지역중심대학교 중에서도 목포대학교처럼 교수회가 학칙화되어, 정착되어 있었더라면,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구성원 사이에 올해와 같은 극심한 혼란과 갈등은 격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본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반대하던 전 교수회 사무처장 김근중교수의 해임이라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안을 둘러싸고는 대학구성원과 본부사이에 법정 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1차 소송에서 법원은 대학본부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아직도 본부의 일방적 독주에 갑갑한 심정을 토로하는 교수님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본부는 힘으로 구성원을 누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구성원의 화합을 위해 소통을 무엇보다도 중시하는 본부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올해처럼 본부의 독선과 전횡이 일어날 경우에는 효과적으로 이를 견제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교수회가 학칙화되어 뿌리를 내려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교수회에서는 대학의 본연의 모습인 학문연구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 그리고 교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그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불편함을 느끼신 교수님들께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수회장 **한 기 련**



교수회 존재의의

자치행정학과 박 홍 식 교수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 대로 또는 천부인권적 측면에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 해당된다. 따라서 교수라는 조직체에서 교수회를 구성하는 것은 마땅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다른 차원에서 보면 교수회라는 조직체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탈퇴할 수 있는 것도 개인의 자유의사라 할 것이다. 테니스 동호회를 구성·가입하여 활동하거나, 골프 동호회를 조직하여 구성원으로 있다가 탈퇴할 수도 있으며, 어떠한 모임이나 조직에도 가입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그러면 교수회라고 하는 조직체가 골프동호회 등의 조직과 동일한 수준에서의 조직체인가?

골프동호회는 자유의사에 의해 조직원이 될 선택의 자유가 있다. 그러나 교수회는 개인이 한 대학 사회의 일원이 되는 순간부터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자연발생적으로 교수 집단의 일원 즉 교수회의 구성원이다.(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직체이거나 자율집단 조직이거나의 문제는 후차적으로 생각해 보자), 즉 강릉원주대학교 교수집단의 구성원이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평교수들로서 그 자격이 부여되는 자율단체로서 교수회와, 교수임용과 더불어 부수적으로 구성원이 되는 전체 교수와의 차이는 왜 발생하고 보다 근원적으로는 왜 양자의 조직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가? 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

조직을 경영하는 기능은 총장과 그 참모들이 자신의 의사와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보다 신중을 기할 때에도 위원회라는 형식과 제도를 통해 행해지고 있다. 따라서 대학은 온전히 소수의 몇 사람에게 의해 좌우될 수 밖에 없다.

전체로서의 교수회는 특별한 기능이 없는 학칙에만 존재하는 형식적 조직일 뿐 사문화된지 오래이다. 지성인의 모임이라고 하는 교수집단이 소수의 보직 교수들에 의해 대학이 운영되고, 심지어 대학 목표의 방향을 전환할 때에조차 평교수들의 의견이 반영될 기회가 전체로서 존재하기가 여의치 않다 (실제 전체로서의 교수회가 언제 모였던가?)

바로 이러한 점이 평교수로서의 교수회라는 조직의 존립 근거가 될 것이다. 교권수호나 권익보호라는 현실적 이익보다는 말과 글을 무기로 삼아 교수직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교수들은 총장 1인이 임명하는 보직교수들 간의 의견교환보다는 어느 누구와도 말과 글이 상통하는 사회가 속의적 민주주의 (deliberative democracy)를 보다 잘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교권수호와 권익은 어쩌면 허위의식이며 집단이기주의적이라 생각될 수 있기에 이에 동조하게 되면 조용히 살기 위해 교수회에 가입치 아니할 수 있고, 또 교수회라는 조직을 이끌어가는 이들조차 과두제의 철칙(iron rule of Oligarchy)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하면 가입탈퇴의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교수회의 운영에 미숙함이 있고 답답한 일들이 어디 한둘이겠는가?

그럼에도 내가 교수회를 등지지 못하는 것은 나의 정신과 영혼을 전체로서의 대학 문화로 담아내기 위해 고뇌하고 가슴아파하는 분들이 교수회에 더 많이 계시기 때문일 것이다.

교수집단의 말과 글은 우리의 정신이며 영혼이다. 우리의 정신과 영혼은 학문의 장에서 뿐 아니라 대학 사회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 상호 교류되고 소통되어질 때 지행합일로서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나 하나의 생각이 바뀌면 사상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면 사회가 변화합니다."



교수회의 학칙화가 대학의 운영을 어렵게 할까?

전 강릉원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교수회 사무처장

우리대학에서 교수회 학칙화는 오랜 기간 동안 교수회장단의 숙원사업이었지만,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교수회장단도 교수회의 존립근거를 학칙에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었습니다. 총장이나 대학본부로부터의 선제적 결단을 기대할 수 없었던 교수회로서는 2013.6.28.에 안을 만들어 총장에게 입법예고를 해 주거나 또는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총장이나 교무처장은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문서로, 전화로, 그리고 교무처장을 직접 만나 독촉하였음에도, 이미 교수님들께 알려드린대로, 6월에는 7월에 보자, 7월에는 8월에 보자, 방학때 하자라는 식으로 미뤄왔고, 이미 9월도 지나고 있습니다. 총장이나 대학본부는 지금까지 아무런 의견을 전달해 오지 않았으며, 교무처장은 시일만 보내다 2년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처장직에서 해임되는 상황을 맞은 것입니다(교무처장의 사임 및 교무·학생처장의 해임은 교수회 사무처장에 대한 해임징계가 관련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교수회가 제안한 학칙개정안은,

1. 교수회와 대학본부와의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개정의 내용을 최소로 하여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제거하고, 단지 최소의 개정으로 다만 교수회의 학칙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고,
2. 내용에 있어서는, ① 전체교수회의 당연직 의장을 총장으로 하는 현행규정을 일반적으로 교수회장을 의장으로, 총장이 소집하는 경우에는 총장이 의장이 되도록 하고, ② 교수회장의 전체교수회의 소집권을 인정하고, ③ 심의기구로 규정된 현행규정을 결정기구로 변경하여 전체교수회의 권한을 강화하였으며, ④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을 “부의”하는 사항으로 용어 통일을 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교수회가 왜 갑자기 법제화를 서두르는가 라고 반대의사를 표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앞에서의 설명과 같이, 사실 그것은 오랜 동안 우리 대학에서 추진하여 오던 것이었으며, 교수회장의 권한 강화는 단지 전체교수회 소집요구권을 인정하고, 교수회장이 소집하는 전체교수회의 의장이 되는 형식적인 권한일 뿐입니다. 실질적인 권한은 전체교수회에 주어지기 때문에, 교수회장의 독주나 독선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은 없었으며, 이것은 바로 직전 교수회장께서도 추진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오히려, “그러한 반대논리는 총장을 개인적으로 두둔하기 위한 것”이라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반대의견을 선의로 해석한다면, “교수회의 견제가 지나치면 총장이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을 것이다”라 우려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교수회의 학칙화가 된다면, - 그 내용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지만 - 총장의 업무수행이 상당 부분 견제 받을 것은 확실합니다. 물론 그것을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총장의 권한행사가 제약되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인 안이 채택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학은 총장의 직권에 의한 2인의 학장 해임, 총장의 2학과장에 대한 조사위원회 회부와 경찰 고발, 총장의 교수회 사무처장 중징계의결 요구와 직위해제, 나아가 해임처분 등, 절대권력자인 총장에 의한 중대한 교권침해가 “총장의 적법한 행정행위”라는 탈을 쓰고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은 총장의 개별적인 부인설명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을 위한 구조조정의 반대세력 제압이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대학 구조조정에 대하여 교수회는, 구조조정의 숨은 의도는 대학의 경쟁력 강화가 아니고 - 소문과 같이 -, 복지학과의 신설, 김만재 교수의 복지학과 전입, 그리고 총장의 김만재교수에 대한 부총장 임명이 아닌가? 하고 이미 수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질의하였습니다. 총장이나 당사자인 김만재 교수는 아직 아무런 공식적인 부인입장을 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그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우리 대학은 실로 그런 불순한 이유 때문에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구조조정에 대하여 적법성과 타당성을 논하기 이전에 총장의 공식적



인 부인 입장이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총장이 공개적으로 그것을 부인하지 않는 한 구조조정이란 어려운 과제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분을 일으킬 뿐입니다.

실로 지난 2년여간 우리 대학을 휩싸고 진행된 구조개혁의 혼란에서, 만일 총장이 가진 절대권력에 작은 견제장치라도 있었다면 상당한 부분은 피할 수 있었던 손실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가진 제도는 학장해임을 견제할 수 있었거나, 학과장들의 경찰고발을 제지하거나, 교수회 사무처장에 대한 해임처분을 막을 수 있었던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원리는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 부패 또는 절대적 무능이나 절대적 손실을 낳는다는 것이 우리 역사의 산 증거입니다. 그리고 절대적 권력은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절대적 권력에 이르는 어떤 순간부터는 그 권력에 대한 견제가 매우 곤란하다는 것을 역사로부터 배워 왔습니다.

우리 대학의 제도에 있어서 총장의 권력은 거의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호하는 교육부 관료들은 1차적으로는 총장의 절대권력을 통하여 대학사회와 교수들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보다 궁극적인 목적은 총장직을 자신들이 장악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관료들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시도는 이미 이명박정권의 이주호장관에 의하여 깊숙이, 그리고 치밀하게 시작되었으며, 국교련과 지교련 등 교수단체들의 활동은 아직 그것을 효과적으로 돌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노력들이 부분적으로는 성공하여, 목포해양대학교 총장선거에서 김응권 전교육과학기술부차관이 후보지원에서 본인 사퇴로 종결되고, 교통대학교의 총장은 재선출에 돌입하는 등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 교수들은 대학의 자율화, 민주화를 위하여 너무나 많은 과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기성회계를 대체하는 국립대학교 재정회계법에서 절대권력의 총장제를 개선하고, 총장직선제를 회복하며, 단과대학 학장임명에 그 단과대학 교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은 “다만 인사가 만사”라는 측

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과제일 뿐입니다. 교수회의 학칙화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하나의 계단일 뿐이고, 우리는 그 첫 계단을 아직 오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제도를 잘 마련한다 해도,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제도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역사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총장의 절대권력을 견제하고 교수회에 견제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권력의 균형을 이루는 교수회의 학칙화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운용하는 우리가 잠시라도 우리의 역할을 게을리 하면 그 제도는 제도 본래의 취지와 달리 운용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수회가 현재 만들고 있는 교수회 학칙화가 우선 교수님들에게 잘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러한 규정을 만들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런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조조정이란 거대한 물결의 한가운데를 지나가며

패션디자인학과 교수일동

2012년 6월 연찬회 결과보고 장소에서 ‘패션디자인학과는 강릉 캠퍼스로 이동한다’는 전방욱 총장의 공식적인 발언 이후 패션디자인학과는 생각지도 않은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총장 선거를 연이어 두 번 치룬 후의 학내 분위기는 자정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듯 했고 많은 교수들, 특히 젊은 교수들은 국립대의 구태연한 현재 시스템으로는 본인들의 정년까지 대학이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의 의견도 점점 커져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대학의 체질개선을 위해 전방욱 총장은 총장 직속기구인 미래연을 통해 대학발전의 청사진을 점차 구체화시켜 나가는 작업을 진행했다. 패션디자인학과 이영숙 교수는 몇 달에 불과 했지만 미래연의 한 멤버로서 젊은 교수들이 제시하는 의견들을 들으며 생각보다 밝은 강릉원주대의 미래가 머릿속에 그려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당시 원주캠퍼스에는 패션디자인학과와 음악과가 사용할 예술관이 건립되고 있었다. 이 건물은 전 한송 총장이 어렵게 국회에서 승인을 얻은 자금으로 1억을 들여 공모하여 채택되고 패션디자인학과 교수들이 전국 및 해외에 있는 의상계통 학교 시설들을 답사하고 구조설계에 참여하여 신축되는 예술관 건물이다. 또한 전방욱 총장이 선거 때는 물론 당선된 그 해 4월 초순까지도 패션디자인학과 건물을 조속히 완공하고 확실한 시설을 완비시켜 줄 것을 패션디자인학과 교수들에게 약속하였다. 패션디자인학과 교수들은 각 고등학교에 가서 입시홍보의 첫 번째 사안으로 내년이면 최고의 시설에서 수업 할 것을 약속하였고 재학생에게도 패션디자인학과 건물은 큰 자랑거리였다.

이 새로운 건물에 하루빨리 들어가 좋은 시설에서 수준 높은 교육이 이루어 질 것을 기대했던 패션디자인학과 학생, 학부형, 교수들은 전혀 예고에도 없던 강릉 이전에 역장이 무너지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부했다. 총장이 약속한지 불과 세 달도 채 못 된 시점에 문화 대학 해체와 패션디자인학과 강릉으로의 이전은 도저히 용납되지 않았다.

연찬회 후 패션디자인학과 교수들은 총장을 만나고자 찾아간 알펜시아에서 직접 총장과 삼처장들로부터 편제만 바뀔 뿐 이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명한 이야기를 들었고 미래연에서 제시하는 의견도 분명 거기까지였다. 오히려 미래연에 속했던 이영숙 교수는 학교 전체가 변화되려면 패션디자인학과와 편제는 불가피한 것이므로 편제 개편은 받아들이자고 학과 교수들을 설득하기도 했었다.

그 후 대학본부로부터 흘러나온 '편제 개편이 아니라 이동'이라는 이야기들이 돌면서 수많은 채널을 통해 패션디자인학과 교수들은 구조조정 관련 정식면담을 요구했지만 선거 때부터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외쳐왔던 총장은 철벽불통을 고수했고 간신히 원주 캠퍼스에서 단 한번 총장으로 부터 오직 2012년 교과부 컨설팅 보고서에 의해서 일을 처리할 뿐이라는 간단한 대답만을 들었다. 그러나 몇몇 교수들과 학생들의 교과부 방문 후 총장과 대학본부의 발언들은 거짓임이 드러나게 되었고 총장은 연구년도 채 끝나지 않은 김만재 교수를 교수회의 동의 과정도 무시한 채 기획처장으로 임명, 모든 절차와 학칙을 어기면서 구조조정을 밀어부쳐 왔다.

그 동안 패션디자인학과는 이제까지와 같이 원주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상식과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시해가며 대학본부를 설득하려 했으나 대학본부는 단 한번도 진정성을 갖고 패션디자인학과 의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학의 구조조정이란 큰일을 위해서 패션디자인학과와 이동은 어쩔 수 없다는 논리로 학내외 의견들을 묵살하기까지 했다. 총장은 구조조정에 관한 문화대학 전체 교수회의를 열어 달라고 요구했던 음악과와 유아교육과 학과장을 분명치도 않은 이유로 경찰에 고발하기까지에 이르렀다. 학칙과 규정에 그리 밝지 않은 패션디자인학과 교수들은 교수회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고 교수회의 사무처장은 패션디자인학과를 도와 대학의 구조조정에 정면으로 도전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교수직 해임까지 당하게 되었다.

해당학과 학생들과 교수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개면담을 요구해왔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피했고 열린 총장과 대화(?)란 허울뿐인 모임은 진실 되지 못한 총장의 발언으로 오히려 학생들의 분노만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총장과 대학본부는 학생들과 지역시민들 때문에 공청회가 모두 무산되었다고 모든 책임을 회피해 버리고 결국은 법적 소송으로까지 치닫게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패션디자인학과는 사정을 모른 채 대학본부의 말만 믿은 많은 교직원들의 따가운 눈총을 감수해야 했다.

추석 연휴 전날 법원에서 내린 집행정지 명령은 이제까지 총장과 대학본부가 얼마나 상식과 절차를 무시하며 일을 진행해왔는지에 대한 객관적 평가라고 여겨진다. 법원심문기일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기획처장은 교육부 승인 후 학칙개정은 요식행위에 불과한 거라 말하였고 이는 실수로 여겨지기 보다는 본인의 진심을 여과 없이 드러낸 듯이 보였다. 법적 소송까지는 가지 않도록 교수회에서 무척 애를 썼으나 결국은 소송에 이르렀고 법원은 총장이 그렇게도 무시해 온 패션디자인학과와 손을 들어 주었다.



패션디자인학과 교수들의 이득을 위해 강릉으로의 학과이동을 반대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내용을 법원에 제출한 대학본부는 패션디자인학과 수업특성에 대한 답변자료조차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서면으로 제출했기에 과연 전방욱 총장과 대학본부는 강릉원주대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의문이 든다. 국립대학이기에 현 정부의 정책중 하나인 반값 등록금 실현으로 무엇보다 학생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줘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초동의 법무법인 변호사를 4명씩이나 선임할 정도로 우리 대학의 기성회비가 넉넉한지도 궁금하고 끝까지 항소하겠다는 총장의 발언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있는 기성회비 남용문제를 다시 생각나게 한다.

대학본부의 정책들 중에는 대학발전을 위한 좋은 것들로 평가되는 것들이 있었고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모습을 보고 박수쳐 주고 싶었지만 일방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해 그 모든 것이 묻혀버렸다는 느낌이다. 만약에 대학구성원으로서 패션디자인학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가 있었다면, 단 한번이라도 패션디자인학과와의 사정을 들어주고 공감하는 척이라도 했다면 대의명분을 위한 총장의 결정에 힘을 실어주었을 거란 생각이 든다. 국립대는 당장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학과도 미래를 위해 끌어안고 가야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유지하도록 애쓰는 게 총장으로서의 책임이라 생각된다. 임기 중에 그럴듯하게 일한 흔적을 남겨야 한다는 총장으로서의 부담감은 이해되지만 곧 닥칠 대학의 위기 상황을 전쟁터나 전염병 환자로 취급해서 뭔가 없애버리고 떼어내면 모든 문제가 해결 될거란 생각은 사람을 다루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의 본질을 너무나 오해하는 것은 아닐까. 교육부 정책을 핑계 삼아 총장의 권한을 대학 내부에서 휘두를 것이 아니라 국립대학의 존재 가치를 이어나가도록 교육부를 설득하는 것이 총장의 권한을 최대한 의미 있게 사용하는 거라 생각된다.

어느 학과보다도 흐름에 민감한 패션디자인학과는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제대로 된 구조조정을 열망하고 있다. 패션디자인학과 교수와 학생들은 교수회 회장과 부회장을 역임했던 전방욱 총장, 김만재 기획처장이 그렇게도 무시한 교수회 회보를 통해 본인들의 역작이라 생각되는 구조조정이 몇몇 측근들 이외에는 전혀 이해되지 않음을 분명히 알리고 기록으로 남겨져서 이 후에 다시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신임교수



성명 김윤정
소속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메일 63yjk@gwnu.ac.kr
연구실 전화번호 033-640-2108
학력
서울대 학사
서울대 석사
서울대 박사
경력
서울대, 충북대 등 강사, 〈예술가〉 기획위원, 〈시현실〉 편집위원



성명 최준환
소속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메일 joonhwan@gwnu.ac.kr
연구실 전화번호 033-640-2169
학력
경기대학교 응용통계학과 학사
경기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석사
중국 절강대학교 정치경제학전공 박사
경력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전임연구원
성균관대학교 현대중국연구소 연구교수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HK연구교수



성명 권자경
소속 사회과학대학 자치행정학과
메일 jkkwon@gwnu.ac.kr
연구실 전화번호 033-640-2227
학력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박사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석사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자치행정학과 행정학사
경력
2010-2012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
2008-2011 이화여대, 명지대, 경기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건국대, 한국교통대 등 강사



성명 박우정

소속 생명과학대학 해양식품공학과

메일 pwj0505@gwnu.ac.kr

연구실 전화번호 033-640-2857

학력

학사 : 경희대학교 유전공학과

석사 : 경희대학교 생명공학원(유전공학전공)

박사 : 미국 코넬대학교 식품공학

경력

코넬대학교-Postdoctoral Associate (2010-2012), New Investigator Award
(2008 ISSFAL Conference, Kansas City, USA)



성명 신승철

소속 예술체육대학 미술학과

메일 hy0404@gwnu.ac.kr

연구실 전화번호 033-640-2529

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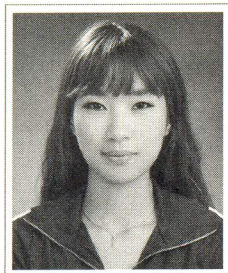
홍익대학교 건축학과(공학사)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학과(문학석사)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 미술사 및 이미지사학과(철학박사)

경력

(前)베를린 훔볼트 대학교 이미지행위 및 체현 연구소 연구원



성명 이혜진

소속 예술체육대학 공예조형디자인과

메일 jin5454@gwnu.ac.kr

연구실 전화번호 033-640-2537

학력

청주대학교 예술대학 패션디자인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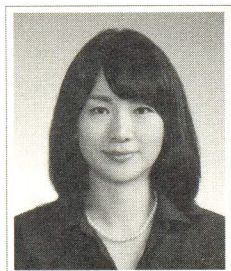
건국대학교 텍스타일디자인전공 석사 졸업 및 박사재학

경력

개인전 6회(청주, 도쿄, 오사카)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특별초대전 '이혜진 아패브릭쇼'

47회 대한민국 디자인 전람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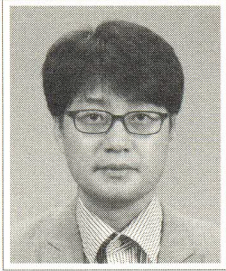
성명 백경화
소속 치과대학 치의학과
메일 kb2012@gwnu.ac.kr
연구실 전화번호 033-640-2462
학력
학사 : 서울대학교
석사 : Texas A&M University
박사 : Texas A&M University
경력
post doctoral research fellow: University of Pennsylvania
선임 연구원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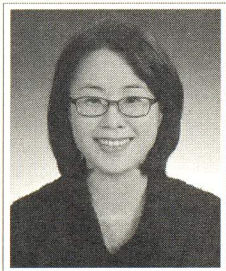
성명 강명신
소속 치과대학 치위생학과
메일 mskang68@gwnu.ac.kr
연구실 전화번호 033-640-2763
학력
치의학사
구강생물학 석사
보건학 박사 졸업 / 철학 박사 수료
경력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육실 인문사회치의학담당 BK연구 교수
연세대 보건대학원 보건의료법윤리전공 연구교수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생명윤리학회, 한국의철학회, 대한노년치의학회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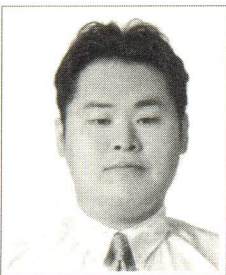
성명 홍형우
소속 인문대학 사학과
메일 rainwell@gwnu.ac.kr
연구실 전화번호 033-640-2142
학력
학사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고고미술사학과
석사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박사 : 러시아과학원 시베리아지부 고고학민족학연구
(Institute of Archaeology and Ethnography Siberian
Branch of the Russian Academy of Science)
경력
2005.10 ~ 2012. 9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
2012. 9 ~ 2013. 2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유물연구과장
2013. 4 ~ 현재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성명 이동기
소속 인문대학 사학과
메일 leedk@gwnu.ac.kr
연구실 전화번호 033-640-2147
학력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서양사학과 학사 및 석사
독일 예나대학교 사학과 박사
경력
독일 본 대학교 초빙연구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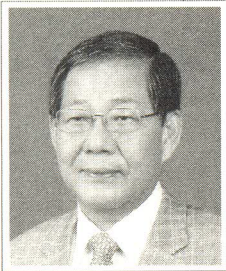


성명 채수은
소속 인문대학 교직과정
메일 schae@gwnu.ac.kr
연구실 전화번호 033-640-2564
학력
성균관대학교(학, 석사)
미국 메릴랜드대학교-칼리지파크(Ph.D.)
경력
AIR(American Institutes for Research) Research
Associate Intern 메릴랜드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강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성명 김대원
소속 치과대학 치의학과
메일 Kindw@kwnu.ac.kr
연구실 전화번호 033-640-2229
학력
한림대학교 유전공학과 / 유전공학과(이학사)
한림대학교 유전공학과 / 단백질 생화학(이학석사)
한림대학교 바이오메디컬학과 / 단백질 생화학(이학박사)
경력
2005. 9 ~ 2008. 8 (주)네추럴 F&P 중앙연구소 선임연구원
2010. 9 ~ 2013. 8 한림대학교 생명공학연구소 연구조교수

정년퇴임교수



◆ 김일병 교수 (국어국문학과)

◆ 학력

- 1969. 2.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과 (문학사)
- 1977. 2.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교육학석사)
- 2000. 2. 경희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문학박사)

◆ 주요 경력

- 1969. 3. ~ 1971. 6. 군복무 ROTC 7기 중위
- 1972. 3. ~ 1975. 2. 서울 천호중학교 교사
- 1975. 3. ~ 1981. 5. 서울사대 부설 중-고등학교 교사
- 1982. 3. ~ 2012. 8. 강릉원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 1985. 1. ~ 1987. 2. 강릉원주대 신문사 주간
- 1986. 6. ~ 1989. 2. 강릉원주대 예비군대대 대대장
- 1993. 4. ~ 1995. 3. 강릉원주대 인문학연구소장
- 1997. 3. ~ 1999. 2. 강릉원주대 인문대학장, 교육대학원장

◆ 주요 활동

- 학회 활동

- 한국어교육학회(1979. ~) · 국어국문학회(1981. ~) · 국어학회(1981. ~) · 한국언어학회(1982. ~)
- 한국어학회(1994. ~) · 이중언어학회(2000. ~) · 국제한국어교육학회(2001. ~)

- 봉사 활동

- 1979. 3. ~ 1980. 2. 교육부 중등학교 교과서 맞춤법 교정 및 검토위원
- 1992. 3. ~ 1994. 2. 교육부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심의회 심의위원
- 1996. 9. ~ 1997. 8. 교육개발원 중학교 국어 3-2 교과서 집필위원
- 2000. 3. ~ 2002. 2.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상-하) 심의위원
- 1999. 9. ~ 2000. 2.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중학교 국어교과용도서 검토협의를진
- 1987. 10. ~ 1988. 9. 강원도 문화상 심사위원(제29회, 제30회)
- 1992. 10. 강원도 연구직(학예연구사) 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출제위원
- 1990. 7. ~ 1998. 8. 강원도 교원연수원 일반연수 및 자격연수 강사
- 1997. 7. ~ 1998. 8. 관동대 교원연수원 일반연수 강사
- 2002. 1. ~ 2002. 12. 한국어학회 제1차 국제학술대회 조직위원
- 2012. 3. ~ 현재. 서울 성동구 무학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장



◆ 차영규 교수 (미술학과)

◆ 학력

- 1969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졸업
- 1981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 전공 졸업

◆ 주요 경력

- 1972 ~ 1987 서울 염광 중학교 교사
- 1978 ~ 1979 서울 성덕 여자 중학교 교사
- 1979 ~ 1980 한국 교육 개발원 (KEDI) 연구원
- 1980 ~ 1982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강사
- 1981 ~ 1982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강사
- 1981 ~ 1982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강사
- 1998 ~ 2000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 강사
- 1993 강릉대학교 환경 조형 연구소 소장
- 1997 ~ 1999 강릉대학교 기숙사 사감장
- 2001 ~ 2003 강릉대학교 예술체육 연구소 소장
- 2007 ~ 2009 강릉대학교 예술체육대학 학장
- 1982 ~ 2012 강릉대학교 예술체육대학 미술학과 교수
- 2012. 8 강릉원주대학교 정년 퇴임

◆ 주요 활동

— 일반 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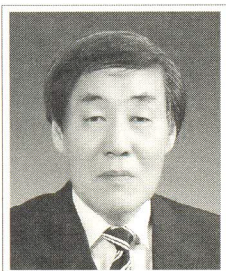
- 1979 ~ 1981 한국 미술협회 동양화 분과위원
- 1982 ~ 1995 한국미술협회 상임이사
- 1993 ~ 1995 평화통일 자문위원
- 1999 ~ 2002 한국 미술협회 이사, 대전 엑스포 조직위원회 자문위원
- 1996 ~ 1999 한국미술협회 강릉지부 지부장
- 2003 ~ 2006 한국 미술협회 광진구지부 지부장
- 2005 ~ 2007 서울 광진구 예술 문화단체 총연합회 회장
- 2006 ~ 2007 광나루 사생회 회장
- 2006 ~ 2007 강릉 사생회 회장

— 표창

- 서울시 교육감 표창1회
- 교육부 장관 표창 1회

—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

- 강원도전 · 경기도전 · 충북도전 · 경남도전
- 대한민국 미술대전 · 강원도문예진흥기금 심의위원
- 현재 한국국제미술 교류회 회장
- MBC 미술대전 · 무등 미술대전 · 경인 미술대전
- 한국화 대전 · 매일 미술대전 · 금강 미술대전
- 단원 미술대전 · 겸재 미술대전 · 가여 미술대전



◆ 한 송 교수 (치의학과)

◆ 학력

-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치의예과 수료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과 학사
- 미국 코네티컷 의과대학 박사

◆ 주요 경력

- 미국 코네티컷 의과대학 생화학과 박사후 연구원
- 미국, 뉴욕주 뉴욕시 소재 Albert Einstein College of Medicine (Yeshiva University) 생화학과 교원
-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교수
- 국립 강릉대학교 치과대학장
- 강릉대학교 치과병원장
- 한국 치과대학 학장협의회회장
- 한국 치과대학 교육협의회회장
- 강릉대학교 제4대 총장
- (통합)강릉대학교 총장 및 강릉원주대학교 초대 총장
- 한국 대학교육협의회 이사
- 강원지역 대학총장협의회회장
-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
- 지역중심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수석부회장
-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

◆ 주요 활동

- | | |
|------------------|-------------------------|
| · 대한생화학분자생물학회 회원 | · 구강생물학회 회원 |
| · 구강내과학회 회원 | · 강원발전연구원 이사 |
| · 강원도 남북교류위원 | · 대한 에이즈 예방협회 강원도회 운영위원 |
| · 학교법인 용문학원 이사 | ·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 |



◆ 구학서 교수 (사학과)

◆ 학력

- 1976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문학사
- 1982~1990 서울대학교 대학원 문학 석사·박사

◆ 주요 경력

- 1990.3~1992.2 강릉원주대학교 전임강사
- 1992.3~1995.2 강릉원주대학교 조교수
- 1995.3~2000.2 강릉원주대학교 부교수
- 2000.3~2012.8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 1992.3~1994.2 강릉원주대학교 방송실장
- 1998.7~2000.6 강릉원주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장

◆ 주요 활동

- “루르 광부 파업”, 강릉대학 인문과학연구소 제9집(1990.6)
- “바이마르 공화국” ‘독일사의 제국면’ (느티나무, 1991)
- ‘절대주의 국가의 역사’ 페리 앤더슨, 공역(소나무, 1993)
- “19세기 후반 독일 관료사회 소고”, 유럽사의 구조와 전환(느티나무, 1993)
- “19세기말 독일의 관리문제”, 강릉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제 17집(1994)
- “독일제국 중간직 관리운동의 발생”, 강릉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제 22집(1996)
- “Wilhelm 독일제국과 체신관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양사학과 박사학위 논문(2002)
- “바이마르 공화국 관리사회의 성격”, 21stprl 인문학의 흐름과 방향, 강릉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2001)
- “독일 고위관리조직 운동 소고” 역사교육 연구회, 제 44집(2005)
- “독일의 정치적 근대화”, ‘근대화와 동서양’ (한국방송통신대학교:2006)
- “독일의 산업화”, ‘근대화와 동서양’ (한국방송통신대학교:2006)
- “독일제국 말기 사법부 중간직 관리운동의 의의”, 강릉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2008)
- “리하르트 바그너”, ‘인물로 본 문화’ (한국방송통신대학교:2010)
- ‘중학교 교과서 사회’ 공저(중앙교육진흥:2000)
- ‘중학교 사회과 부도’ 공저(지학사:2000)
- ‘이야기 세계사 2’ 청아출판사(2006)
- ‘중학교 역사부도’, 천재교육(2010)
- ‘세계사를 움직인 100대 사건’, 청아출판사 감수(2011)
- ‘세계사 넓게 보기’, 녹색지팡이(2011)



◆ 정경숙 교수 (사학과)

◆ 학력

- 1970. 이화여자대학교 문학사(한국어문학)
- 1975. 이화여자대학교 교육 대학원 교육학석사(사회과교육)
- 1989.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사학)

◆ 주요 경력

- 1975 ~ 1982 이화여자대학교 여성연구원 연구원
- 1983 ~ 1988 이화여대, 단국대학, 외국어대학교, 인하대학교 강사 역임
- 1988 ~ 현재 강릉원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 1990 ~ 1997 강릉원주대학교 기숙사 사감장
- 2007 ~ 2008 강릉원주대학교 인문대학 학장
- 2007 ~ 2008 강릉원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장
- 2012 ~ 2013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 회장
- 1993 ~ 1996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강릉지소 소장
- 1993 ~ 1997 국정홍보위원회 강원도 도정홍보위원
- 2003 ~ 현재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2003 ~ 2011 강원도 문화재 위원
- 2003 ~ 현재 강릉문화재위원 영향평가 위원
- 2008 ~ 2012 강원도 새주소위원회 위원
- 2006 ~ 현재 강릉지명위원회 위원
- 2009 ~ 2012 강원도 여성 수련원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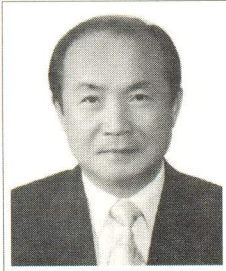
◆ 주요 활동

— 학회 활동

- 한국사연구회 · 한국여성학회 · 한국여성사연구회 편집이사
- 우리춤연구회 편집이사 · 한국독립운동사연구회 편집위원

— 연구 활동

- “조선중후기 효열연구 - 강릉 명주의 여성을 중심으로 -”, 인문학보(강릉원주대 인문과학연구소:1995)
- “진명부인회의 활동과 사상”, 20세기 전반기 한국사회의 연구(1999)
- “조선역사”, 한국사학사(신형식교수회갑기념한국사학사 간행위원회:1999)
- “구한말 가족관계의 변화”, 인문학보 (강릉원주대 인문과학연구소:1999)
- “근대 한국 여성관의 전개”, 인문학보 (강릉원주대 인문과학연구소:2000)
- “가족관계의 변화”, 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2000)
- “인도 여성운동의 특징”, 인문학논총 (국립7개대학공동논문집간행위원회:2001)
- “허난설헌의 페미니즘 연구”외 1편, 교산 허균과 난설헌 허초희 논문집(2009)
- “영동지방 世襲巫와 舞巫”, 우리춤 연구(우리춤연구소:2010)



◆ 김학기 교수 (식물생명과학과)

◆ 학력

- 강원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농학사
- 강원대학교 대학원 작물학 전공 농학석사
- 강원대학교 대학원 작물학 전공 농학박사

◆ 주요 경력

- 1971. 02 ~ 1973. 06 보병 제 13연대 소대장 근무(R.O.T.C)
- 1974. 03 ~ 1985. 03 강원도 교위 중등교원
- 1985. 04 ~ 1989.02 상지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조교수
- 1989. 03 ~ 현재 원예학과 / 식물응용과학과 조교수, 부교수, 교수
- 1990. 03 ~ 1992. 02 강릉대학교 산업대학 원예학과 학과장
- 1992. 01 ~ 1996. 12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시험장 겸임 연구관
- 1992. 03 ~ 2007. 12 강릉시, 양양군, 평창군, 정선군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위원
- 1897. 03 ~ 1999. 02 강릉대학교 생명과학대학 학장 겸 산업대학원장
- 2000. 06 ~ 2007. 12 한국원예학회 평의원
- 2000. 06 ~ 현재 강릉시 농업현장 서비스 현장심의위원회 위원
- 2002. 01 ~ 현재 강릉시 농정심의회 위원
- 2002. 05 ~ 2004. 04 한국화훼연구회 이사
- 2002. 12 ~ 현재 강릉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 2004. 03 ~ 현재 강원도 지역농업 특화사업 겸임 연구관
- 2006. 04 ~ 현재 강원도 새농촌 건설운동 자문위원
- 2007. 04 ~ 현재 강원도 한미 FTA 대책협의회 위원
- 2007. 05 ~ 현재 강원도 한미 FTA 농업 분야 대책협의회 위원
- 2007. 09 ~ 2009. 01 동해안 생명과학연구소장
- 2007 ~ 2013. 04 강릉원주대학교 부설 웰빙농산업정보원장
- 2008 ~ 현재 강릉시 평생학습대학 운영위원
- 2008 ~ 현재 농림수산식품부 수출사업단 연구위원
- 2008 ~ 현재 강릉시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위원
- 2009 ~ 2010 강릉원주대학교 부설 농어민교육원장
- 2011 ~ 현재 한국백합생산자중앙연합회 위원

◆ 주요 활동

－ 국내 특허

- 1997.10.13. 석탄회를 이용한 유.무기 복합비료 및 그 제조방법
- 2010.08.16. 과채류의 품질 개선을 위한 재배방법
- 2011.06.24. 고품질,고기능성 과채류의 재배방법

－ 학회 활동

- 한국 원예학회 평의원
- 한국 자원식물학회 회원
- 한국화훼연구회 이사



◆ 고성종 교수 (공예조형디자인학과)

◆ 학력

- 1972.2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공예과 학사
- 1977.2 홍익대학교 산업대학원 요업디자인 석사

◆ 주요 경력

- 경성대, 단국대 대학원, 성신여대 대학원, 한양대 대학원, 홍익대 대학원, 청주대 대학원, 국민대 대학원, 경희대 대학원 출강
- 서울시 “디자인 서울” 교육 위원
- 강원도전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역임
- 태백시 설계 자문위원
- 단원미술대전, 충북도전 심사위원 역임
- 경인미술대전, 부천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 전국대학미전 운영위원
- 대한민국 미술대전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역임
-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공공프로젝트 심의위원
- 강원도 문화상, 목양공예상, 서울 양천구 20주년 구민상 수상
- 고등학교 미술 교과서 작품수록
- 신문기고(교수신문, 동아일보, 월간도예 등) 15회

◆ 주요 활동

— 학회 활동

- 한국공예가협회 부이사장
- 한국도자공예가회 자문위원, 회장
- 한국미술협회 공예분과 부위원장
-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 심의 위원

— 봉사 활동

- 강릉원주대 예술체육대학 미술학과, 공예과 학과장
- 예술체육대 학장
- 환경조형연구소 소장
- 서서울 신문사 고문
- 서울 양천구 미술협회 회장, 고문
- 강릉미술협회 자문위원
- 강원현대도예가회 회장



◆ 고경호 교수 (여성인력개발학과)

◆ 학력

-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사
-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 주요 경력

- 1985 원주전문대학 전임강사
- 1988 원주전문대학 학생과 조교수 학생과장 역임
- 1990 ~ 1993 원주전문대학 여성교양과 조교수 학과장 역임
- 1993 ~ 1995 원주전문대학 학생과 부교수 학생과장 역임
- 1996 ~ 1998 원주전문대학 행정전산과 부교수 학과장 역임
- 2009 ~ 2013 강릉원주대학교 문화대학 여성인력개발학과 교수 학과장 역임

◆ 주요 활동

－ 학회 활동

- 한국 국민윤리학회 이사
- 중앙법학회 이사

－ 봉사 활동

- 인사위원 역임
- 정년보장 심사위원 역임
- 동아리 지도교수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역임
- 공무원 시험 출제위원 역임



◆ 이찬구 교수 (음악과)

◆ 학력

- 1976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 1981년 쾰른 체칠리아 국립음악원 성악과 졸업 (이태리, 로마)

◆ 주요 경력

- 음악과 학과장 4회
- 교수협의 회장
- 상조 회장

◆ 주요 활동

— 주요 연주 경력

- 1998. 11 대한민국 정부수립 50주년 기념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한 오페라축제 “La Boheme”의 주인공 Rodolfo역(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
- 1999. 4 문화관광부, 한국예술문화진흥원이 주관한 한국 Opera “황진이” 초연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하였으며,
- 2000. 8 한-중 수교 8주년 기념 북경 공연
- 2001. 4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기념 동경(일본)공연에서는 아키히도 일왕내외 및 정부 고위 관리들이 참관
- 2002. 5 한-일 월드컵 축하행사로 문화관광부 후원으로 Opera “시집 가는날” G. Menotti 작곡을 세종문화회관 공연
- 2004 ~ 2005 문화관광부 후원으로 전국에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 태백, 거제, 울릉도 정선, 진부, 거창, 제주도 등 10여 곳에서 Opera “La Boheme” 주역가수로 순회 연주



교수동정

(2012. 6. ~ 현재)

- ◎ 수학과 김홍철, 손성의 교수, 공저 <수치해석>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
- ◎ 중어중문학과 최일의 교수, 저서 <중국시의 세계 — 거울속의 꽃 물속의 달>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로 선정
- ◎ 영어영문학과 이해경 교수, 저서 <셰익스피어극의 각색과 변용 I>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로 선정
- ◎ 회계학과 반선섭, 박창래, 여은정 교수, 공저<IFRS시대의 회계이론>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로 선정
- ◎ 치의학과 박찬진 교수, 제22회 대한민국 과학기술연차대회에서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
- ◎ 환경조경학과 박용진 교수, 국토해양부 국토정책위원회 위원에 위촉
- ◎ 여성인력개발학과 황병수 교수, 대한민국 공군정책발전자문위원회 위원에 위촉
- ◎ 치의학과 엄흥식 교수, 개인 사진전 <빛, 그 안에서>
- ◎ 국어국문학과 장정룡 교수, 제6회 교산·난설헌 학술상 수상
- ◎ 국제통상학과 황원규 교수, 2012년 9월 20일~21일 UN본부 회의 참석 및 UN보고서 집필진 위촉
- ◎ 치과대학 차봉근 교수, 2012 독일치과교정학회서 기조 강연
- ◎ 화학신소재학과 최석정 교수, 강원 10대 특허 우수상 수상
- ◎ 국문학과 강등학 교수, 제8회 월산민속학술상 저술부분 수상
- ◎ 법학과 오경식 교수, 제5기 국회입법지원위원 위촉
- ◎ 무역학과 박형래 교수, 기획재정부 관세심의위원회 위원에 임명
- ◎ 식품영양학과 이원종 교수, 저서 <좋은 음식을 말한다(2012년 백년후 출간)> 보건복지부 우수건강도서 선정
- ◎ 해양식품공학과 김상무 교수, 2012 오투기 학술상 수상
- ◎ 대기환경과학과 최효 교수, “American Journal of Environmental Engineering”의 Editor로 선정 /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 and Resource (IJER)”의 Associate Editor-in-Chief으로 선정 / “Advanced Shipping and Ocean Engineering (ASOE)”의 Editor로 초청, 선정 / 국제화학 및 오염 국제총회에서 우수 논문 발표상 수상
- ◎ 전기공학과 박철원 교수, 대한전기학회 산업전기위원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학술상 수상

- ◎ 치의학과 정세환 교수, 육민관고등학교 교직원에게 <100세 시대 치아 건강관리>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 진행
- ◎ 해양생물공학과 이상민 교수,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선출
- ◎ 치의학과 이재관 교수, 제52회 대한치주과학회 종합학술대회에서 동선신인학술상 수상
- ◎ 관광경영학과 정의선 교수, 국어국문학과 박영주 교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수상
- ◎ 세라믹신소재공학과 박상엽 교수, 강원도지사 표창 수상
- ◎ 생명화학공학과 김한수 교수, (사)대학환경안전협회 회장 선출
- ◎ 법학과 오경식 교수,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제15대 학회장 취임
- ◎ 경영학과 김명호 교수, '6·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의 위원 임명
- ◎ 전기공학과 박철원 교수, 2013년도 전력계통보호제어 연구회 정기총회 및 기술발표회에서 R&D 부문 대상 수상
- ◎ 치위생학과 강명신 교수, 대한노년치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발표 부문 금상 수상
- ◎ 식품영양학과 김은경 교수, 공저 <성인 남녀의 식사성 발열 효과 및 식후 영양소 산화율> 논문으로 2012년도 한국영양학회 학술상 수상
- ◎ 패션디자인학과 김용문 교수, (사)한복문화학회 제5대 회장 취임
- ◎ 해양식품공학과 신일식 교수,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에 위촉
- ◎ 치의학과 박영욱 교수, 우즈베키스탄에서 구순구개열 수술 봉사
- ◎ 국어문학과 최병우 교수, 저서 <조선족 소설의 틀과 결>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
- ◎ 관광경영학과 김경숙 교수, (사)한국관광학회 제22대 학회장에 취임
- ◎ 법학과 오경식 교수,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겸 중앙 상임위원회에 임명
- ◎ 국제통상학과 황원규 교수, 볼리비아 외교부에서 “한국의 경제개발전략과 볼리비아에의 함의”란 제목강연 / 제1회 UNAI 국제대학생 논문발표대회 심사위원장으로 활약
- ◎ 신소재금속공학과 정효태 교수, ‘배출가스 정화 장치 및 이의 배열’ 특허 및 치의학과 박영욱 교수, ‘신규한 타액선-이식 종양 동물 모델’ 특허가 2013년 강원 10대 특허로 선정
- ◎ 음악과 박수자 교수, Vratsa state orchestra 초청으로 10월 19일 브라차(Vratsa) 시청에서 불가리아 Vratsa state orchestra와 협연
- ◎ 산업정보경영공학과 박준철 교수,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최우수논문상 수상



교수회 활동

(2012. 6. ~ 현재)

1. 평의원회 개최

1) 제17-5차 평의원회 (2012.6.19.)

- 안건 1. 총회 의결사항인 성과급적연봉제 토론 및 결의문 채택에 관한 후속 조치
- 2. 감사 선출
- 3. 교수친목회 회갑 축의금 지출 건

2) 제17-6차 평의원회 (2012.7.6.)

- 안건 1. 총장과의 간담회

3) 제17-7차 평의원회 (2012.7.13.)

- 안건 1. 학장 면직과 그 후속 조치에 관한 건

4) 제17-8차 평의원회 (2012.10.12.)

- 안건 1. 교수회 학칙화에 관련한 건
- 2. 「(통합) 강릉대학교 경영진단 보고서」에 관한 논의

5) 제17-9차 평의원회 (2012.11.22.)

- 안건 1. 「(통합) 강릉대학교 경영진단 보고서」 (2007.10., 대학교육협의회) 건
- 2.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장려금 건

6) 제17-10차 평의원회 (2013.1.22.)

- 안건 1. 교수회장 사직서 제출 관련 후속 조치 논의
- 2. 단과대학장 임명 동의
- 3. 강의질 평가장려금의 건
- 4. 교무위원(기획협력처장) 임명동의 요청에 관한 건

7) 제17-11차 평의원회 (2013.2.26.)

- 안건 1. 2013학년도 기성회 회계 예산(안) 심의
- 2. 구조 조정 건
- 3. 기타 학내 현안

8) 제17-12차 평의회 (2013.3.14.)

- 안건 1. 대학 구조 조정의 건
- 2. 성과급적 연봉제 건
- 3.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장려금 건
- 4. 기타 학내 현안

9) 제17-13차 평의회 (2013.5.9.)

- 안건 1. 대학 구조 조정의 건
- 2. 성과급적 연봉제 건
- 3. 단과대학 학장 선출에 관한 건
- 4. 교수회 학칙화 관련 건
- 5. 총장공관구입 관련 건
- 6. 기타

10) 제17-14차 평의회 (2013.5.28.)

- 안건 1. 성과급적 연봉제 건
- 2. 학칙개정안 건
- 3. 단과대학 학장 선출에 관한 건
- 4. 기타

11) 제17-15차 평의회 (2013.7.3.)

- 안건 1. 교수회 사무처장 직위해제 건
- 2. 기타

12) 제17-16차 평의회 (2013.7.16.)

- 안건 1. 문화대학 학과장 고발 건
- 2. 기타

13) 제17-17차 평의회 (2013.9.3.)

- 안건 1. 김근중 교수 해임 건
- 2. 차기 교수회장단 선출 건
- 3. 기타



2. 국교련, 지교련 출장

1) 2012년도 제3차 국교련 임시총회 (6.15. 전남대학교)

- 안건 1. 국립대학 발전 대토론회
 2. 제4차 임시총회 및 하계워크숍
 3. 학칙 개정 대응 건
 4.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 대안
 5. 기타

참석 : 회장 정경숙

2) 2012년도 제28차 지교련 회장단 회의 (6.21. ~ 6.22. 강릉원주대학교)

- 안건 1. 총장공모제 관련 현황 보고
 2. 강원대학교 총장공모제 관련 규정 제정 및 총장선출과정 발표
 3. 대학서열화 해소를 위한 국공립대학 체제 개편 방안
 4. 기타

참석 : 회장 정경숙, 부회장 한기련

3) 2012년도 제4차 국교련 임시총회 · 하계워크숍 (8.21 ~ 8.22. 제주도)

- 안건 1. 국교련 어젠다
 2. 국공립대학교수대회
 3. 총장직선제 관련 대응
 4. 독립대학 국교련 가입
 5. 기타

참석 : 회장 정경숙, 부회장 한기련

4) 2012년도 제29차 지교련 회장단 회의 (10.25. ~ 10.26. 군산대학교)

- 안건 1. J교수의 “국립대학 발전 방안”에 대한 지역중심대학, 중소규모대학의 의견 수렴 및 대응방안
 2. 총장공모제 시행에 대한 각 대학 상황에 관한 의견교환과 회원교 연대방안
 3. 기타 각 대학 현안 공유

참석 : 회장 정경숙, 부회장 한기련

5) 2012년도 제6차 국교련 임시총회 (12.7. 서울 흥사단)

- 안건 1. 국립대학 발전 정책 토론회
- 2. 국교련 어젠다
- 3. 기타

참석 : 회장 정경숙, 부회장 한기련

6) 2013년도 제30차 지교련 회장단 회의 (1.24. ~ 1.25. 창원대학교)

- 안건 1. “국립대학 발전 방안”에 대한 지역중심대학, 중소규모대학의 의견 수렴 및 대응방안
- 2. 총장공모제 시행에 대한 각 대학 상황에 관한 의견교환과 회원교 연대방안
- 3. 기타 각 대학 현안 공유

참석 : 회장 한기련, 사무처장 김근중

7) 2013년도 국교련 정기총회 및 동계워크숍 (2.14 ~ 2.15. 진주)

- 안건 1. 2012년도 국교련 예·결산 감사보고
- 2. 상임고문, 고문 위촉의 건
- 3.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대응의 건
- 4. 국교련 회칙 개정
- 5. 상임회장 및 감사 선출의 건
- 6. 기타

참석 : 회장 한기련, 사무처장 김근중

8) 2013년도 제1차 국교련 임시총회 (4.12. 부산대학교)

- 안건 1.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대응의 건
- 2. 사업계획 및 예산안
- 3. 기타

참석 : 회장 한기련, 사무처장 김근중

9) 2013년도 제31차 지교련 회장단 회의 (4.18. ~ 4.19. 공주대학교)

- 안건 1. 지교련 당면과제 논의
- 2. 지교련 회원교 확대방안
- 3. 기타사항

참석 : 회장 한기련, 사무처장 김근중



10) 2013년도 제32차 지교련 회장단 회의 (6.20. ~ 6.21. 순천대학교)

안건 1. 성과급적 연봉제 추진에 대한 지교련 회원교의 현황 및 향후 대책

2. 총장공모제 실시에 따른 부작용 현황 파악과 향후 대책

참석 : 회장 한기련, 사무처장 김근중

11) 2013년도 제2차 국교련 임시총회 (6.24. 충남대학교)

안건 1. 성과연봉제 대응 방안

2. 총장선출제 대응 방안

3. 국립대학법 제정 관련

4. 8월 총회 일정 논의

5. 기타

참석 : 회장 한기련, 사무처장 김근중

12) 2013년도 제3차 국교련 임시총회 및 하계워크숍 (8.22. ~ 8.23. 제주도)

안건 1. 국립대 재정회계법 대응방안

2. 교육부의 급여보조성경비 지급 금지에 대한 국교련의 대응방안

3. 상호약탈식 연봉제에 대한 정책 대안

4. 기타

참석 : 회장 한기련, 사무처장 김근중

3. 주요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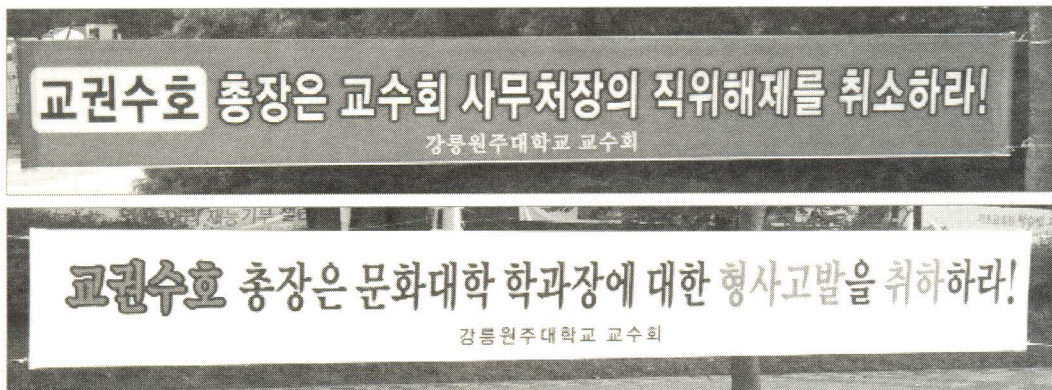
1) 교권수호를 위한 주요활동

- 2012.8.3. 원주캠퍼스 문화대학장과 과학기술대학장 면직과 관련한 교수회 입장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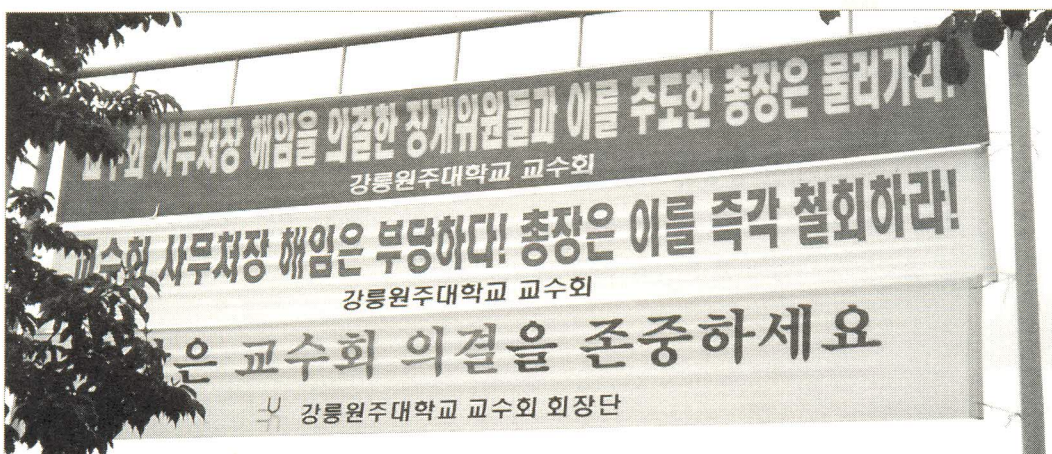
- 단과대학장의 면직은 본부의 인사권 남용
- 평의원회에서 총장과 학장의 입장을 청취한 결과, 양측의 주장이 서로 상반된 것을 확인, 이는 대학본부의 소통부재에 가장 큰 원인이 있었다고 봄
- 교수회는 금번 사태에 대하여 우리 대학과 구성원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것으로 파악하고, 총장은 해임된 학장들과 단과대학 구성원들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는 데 심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

- 2013.2.26. 평의원회의 기획처장 임명동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임명된 사태에 적극 대처

- 2013.6.26. 교수회 사무처장에 대한 전방욱 총장의 직위해제에 대한 교수회의 대응
- 2013.7.16. 제17-16차 평의원회에서 교수회 사무처장에 대한 중징계 의결요구 및 직위해제, 문화대학 2분 학과장에 대한 형사고발과 관련하여 플래카드를 게시하기로 의결



- 2013.7.18. 본부에 문화대학 학과장 경찰고발 관련 자료 요청
- 2013.9.3. 제17-17차 평의원회에서 교수회 사무처장 김근중교수의 해임 취소를 대학본부에 요구하고 해임의 부당성을 알리는 활동을 전개하기로 의결
 - 해임반대 서명운동 전개 및 반대 플래카드 게시





2) 교수회 학칙화를 위한 활동

- 2013.5.14. 본부에 단과대학 학장 임명의 교수 의견 수렴방법 및 학칙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3) 구조조정 관련 활동

- 2012.10.22. (통합)강릉대학교 경영진단보고서(2007년 10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위조본이 학내에 존재하는 것과 관련하여, 대학 본부에 답변 요청
 - (통합)강릉대학교 경영진단보고서(2007년 10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위조본이 만들어진 시기와 작성자, 책임자
 - 위조본의 복사본을 만드는데 사용된 비용의 지출항목 및 금액
 - 미래발전연구원에 위조본의 복사본이 전달된 과정과 올해에 배포된 이유
- 2013.3.28. 교육부에 강릉원주대학교 2014학년도 정원조정계획의 반려 요청
- 2013.7.18. 본부에 (통합)강릉대학교 경영진단보고서 관련 공동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요청

4)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장려금' 관련 활동

- 2012.11.30.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의사 전달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본부의 안(년 2회 1회 지급액 A급 1,400,000원 B급 1,200,000원 C급 1,000,000원 지급하던 것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는 이유로 년 1회 지급한다. 지급액도 고위공무원 지급 기준인 A급 950,000원 B급 850,000원 C급 750,000원 하향 조정하고, 잔액은 자체 학술연구 조성비 및 학술활동지원비 등으로 지원 예정)을 거부, 개선안을 만들어 종전대로 전액 지급할 것을 요구
- 2012.12.4.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장려금 거부 의사 전달
 - 교수회 집행부는 대학본부의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장려금 지급 개선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고자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장려금 반납

5) 성과급적 연봉제 반대 운동

- 2013.4.25. 본부에 성과급적 연봉제와 관련하여 질의
- 2013.5.29. ~ 6.5. 성과급적 연봉제 반대 서명 운동
 - 성과급적 연봉제 반대 서명 교수 수 : 224명, 국교련에 서명부 전달

6) 기성회 예산 관련 활동

- 2013.2.27. 기성회 이사회에 교수회 의견전달 실패
 - 2012학년도 기성회계 예산 집행(총장관사 구입 건) 및 2013학년도 기성회계 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을 기성회 이사회에 전달 실패
- 2013.3.18. 교육과학기술부에 강릉원주대학교 총장관사 취득 승인에 관한 질의
- 2013.9.4. 감사원에 강릉원주대학교 총장의 기성회비를 이용한 제2공관구입 등에 대한 의견전달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 구성 및 운영규정

2011. 11. 01 시행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릉원주대학교 학칙 제101조에 의거 교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

- ①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이하 '본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집행부와 감사의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2.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출 및 총장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회장, 단과대학교수회 또는 전임교원 1/3 이상이 제출한 안건
 4. 교수회 및 평의원회 조직 및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선출직 단과대학장을 제외한 교무위원의 임명동의 및 해임건의
 6. 대학 예산안의 동의 및 결산 감사에 관한 사항
 7. 학장후보자의 선출과 학장 불신임
 8. 평의원 선출과 불신임
- ②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총장에게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총장은 반영여부를 교수회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1. 대학발전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
 3. 대학시설과 교육 및 행정조직의 설치와 폐지
- ③ ①항 5, 6은 평의원회에, ①항 7, 8은 단과대학교수회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④ 총장임용후보자 선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조(대의기구)

본회의 대의기구로서 평의원회를 둔다. 이에 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따로 정한다.

제4조(단과대학교수회)

본회의 권한 중 일부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단과대학교수회를 따로 둔다. 이에 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따로 정한다.

제5조(집행부의 구성)

본회의 집행부는 회장 1인, 부회장 2인(강릉캠퍼스 1인, 원주캠퍼스 1인), 사무처장 2인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6조(집행부의 선출)

- ① 회장은 회원의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재적인원 과반수의 투표에 투표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② 부회장은 캠퍼스 별로 재적인원 과반수 회원의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며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③ 회장과 부회장의 피선거권은 교무위원을 제외한 전임교원으로 한다.
- ④ 사무처장은 평의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 ⑤ 집행부는 임기만료 30일전 차기집행부 구성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⑥ 선거관리를 위한 집행부선출위원회가 선거업무를 담당하며 이 위원회는 각 단과대학 수석평의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

제7조(감사)

본회의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적절성을 검사하기 위하여 감사 1인을 둔다.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제8조(임기)

- ①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의 유고시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잔여임기에 대하여 부회장 중 연장자순으로 회장직을 승계하고,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잔여임기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② 집행부와 감사는 평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퇴할 수 있다.



제9조(회장)

회장은 교수회를 대표하며 각종 회의를 주재하고 그 결의에 따라 제반 업무를 총괄 집행한다.

제10조(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제11조(사무처장)

사무처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사무직원의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제12조(회의)

- ① 본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한다.
- ③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본회 회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④ 총회는 회의일 7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의결안건은 회의소집 시 공고된 안건에 한하여 의결한다.

제13조(의사 및 의결)

- ① 본회는 전체교원 1/3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안건의 의결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과반수의 출석에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회장과 부회장 및 총장 불신임안은 재적인원 2/3 이상의 출석과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휴직자 및 1개월 이상의 장기출장자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서 제외된다.
- ④ 사전에 위임장(별표1)을 제출한 자는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되나 의결정족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⑤ 회의 성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에게 공지 후 소정의 표결 기간을 두어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회의의 공개)

- ① 회장은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원, 학생 및 외부인의 방청을 허용할 수 있다.
- ② 방청인은 회의질서 유지를 위한 회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15조(사무직원)

본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6조(재정)

- ① 본회의 재정은 본교예산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의 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구성할 수 있다.
- ② 본회의 회계연도는 대학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 ③ 본회 집행부 및 감사와 사무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평의원들의 평의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개정)

본 규정의 제·개정은 본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2. 현 집행부는 이 규정에 의거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제17대 교수회 평의원 명단

2013. 10. 29. 현재

구 분	성 명	소속학과	연락처	임 기
회장	한기련	여성인력개발학과	hanaro@gwnu.ac.kr	2013.10.31
인문대학 평의원 (5)	최창섭(수석)	교직과정	ccs1024@gwnu.ac.kr	2014.02.28
	박소현	일본학과	jpshw@gwnu.ac.kr	2014.02.28
	류승구	영어영문학과	dexterlew@gwnu.ac.kr	2014.02.28
	유구종	유아교육과	ykj@gwnu.ac.kr	2014.02.28
	김홍길	사학과	khjg@gwnu.ac.kr	2014.02.28
사회과학대학 평의원 (4)	노영성	경영학과	rohy@gwnu.ac.kr	2014.01.25
	박창래	회계학과	pcr@gwnu.ac.kr	2014.01.25
	손 철	도시계획부동산학과	csohn@gwnu.ac.kr	2014.01.25
	박홍식	자치행정학과	hspark@gwnu.ac.kr	2014.01.25
자연과학대학 평의원 (4)	이창호(수석)	생물학과	chlee@gwnu.ac.kr	2013.12.04
	손성익	수학과	sohnsi@gwnu.ac.kr	2013.12.04
	정일웅	대기환경과학과	iuchung@gwnu.ac.kr	2013.12.04
	김용주	화학신소재과	yjkim@gwnu.ac.kr	2013.12.04
생명과학대학 평의원 (4)	용영록(수석)	식물생명과학과	yryeoung@gwnu.ac.kr	2015.03.01
	신일식	해양식품공학	shinis@gwnu.ac.kr	2015.03.01
	권동진	식품가공유통학과	kdj6001@gwnu.ac.kr	2015.03.01
	홍수희	해양생물공학	s.hong@gwnu.ac.kr	2015.03.01
공과대학 평의원 (4)	염승호(수석)	생명화학공학과	shyeom@gwnu.ac.kr	2014.06.22
	윤상옥	세라믹신소재공학과	soyoon@gwnu.ac.kr	2014.06.22
	정우영	토목공학과	woojung@gwnu.ac.kr	2015.06.22
	이창수	산업정보경영공학과	cslee@gwnu.ac.kr	2015.06.22
예술·체육대학 평의원 (2)	김창규(수석)	미술학과	kim2533@gwnu.ac.kr	2014.11.11
	김용근	체육학과	bskyk@gwnu.ac.kr	2015.05.31
치과대학 평의원 (4)	마득상(수석)	치의학과	mads@gwnu.ac.kr	2013.11.27
	서현우	치의학과	hwseo@gwnu.ac.kr	2013.11.27
	이주현	치의학과	ljh55@gwnu.ac.kr	2013.11.27
	이상신	치의학과	sangshin@gwnu.ac.kr	2013.11.27
문화대학 평의원 (4)	김용문(수석)	패션디자인	ymkim@gwnu.ac.kr	2015.02.28
	황병수	여성인력개발학과	hwan5827@gwnu.ac.kr	2015.02.28
	김숙희	음악과	kimsh@gwnu.ac.kr	2015.02.28
	최윤정	유아교육과	water@gwnu.ac.kr	2015.02.28
과학기술대학 평의원 (5)	이태연(수석)	기계의공학	tynlee@gwnu.ac.kr	2015.02.28
	이준동	멀티미디어공학	jlee@gwnu.ac.kr	2015.02.28
	김사랑	정밀기계공학	dearksr@gwnu.ac.kr	2015.02.28
	김영태	컴퓨터공학	ykim@gwnu.ac.kr	2015.02.28
	김영태	전기공학	ytkim@gwnu.ac.kr	2015.02.28

강릉원주대학교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 발행인 : 한기련 * 편집인 : 최창섭, 이준동, 김근중 * 주소 : 강원도 강릉시 죽헌길 7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
* 전화 : 033-640-2749 * 팩스 : 033-640-2749 * 이메일 : knupa@gwnu.ac.kr * 홈페이지 : <http://pa.gwnu.ac.kr>